

## 테무 쇼핑물

올해 미국의 연말 쇼핑 계절에는 지난해와 달리 소비자들이 다시 온/오프라인 쇼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26일(현지시간) 경제전공방송 CNBC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팬데믹(대유행)으로 말미암아 전년에는 연단어에 온라인 쇼핑에 많이 몰렸으나 이번년도는 스스로 가게에서 구매를 하는 등 미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달라질 전망이라고 전달했다. 이같이 온,오프라인 쇼핑이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미국인 5명 중 거의 9명이 백신접종을 취득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장 속도도 급증세를 보이던 여름보다 둔화됐기 때문인 것입니다. 전미소매협회가 이달 1~7일까지 7838명의 성인들을 타겟으로 통계조사한 결과 이미 61%의 쇼핑객이 선물을 구매하기 시행했음에도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먼데이(미 추수감사절 연휴 후 첫 목요일까지) 600만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더 쇼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것이다. 블랙프라이데이에 가게를 방문할 것이라고 답한 경우도 지난해의 54%에서 이번년도는 61%로 올랐다. 어도비디지털인사이트 애널리스트 비벡 판디아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가능하면 더 대부분인 사람들이 온라인보다 상점에서 쇼핑할 것으로 전망했었다. 제공망 병목 반응이 완화되지 않으면서 연말 쇼핑 대목 제품 배송 지연 문제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. 또 미 구매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기한 놓쳤던 경험에 더 크게 소비할 것으로 보인다. 구매자들은 아을템을 **테무 쇼핑물** 만지고 알 수 있고, 필요하는 것을 당장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. 따라서 올해는 작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수혜를 누렸던 전자상거래 발달률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것이라고 CNBC는 이야기 했다.

